

삶에 밴 검약 일상이 수행이어라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사흘 전 내린 눈은 아직도 녹지 않고 그대로다. 안성 서운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석남사는 해가 짧은 탓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석남사는 안성의 대표적 전통사찰로, 높지도 깊지도 않은 서운산의 산세를 닮아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아하다.

조용한 겨울 산사, 정무 스님과 눈길 위를 걸어가 는 동안 ‘쁘드득 뿌드득’ 소리 외에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님과 함께 걷는 산행은 녹녹치 않았다. 대뜸, 기자에게 “날이 풀리면 대청봉을 같이 오르자”고 한다. 세수 일흔 여섯인 스님은 젊은 기자가 따라 걸기에도 벅할 만큼 활달하다.

“경향대학 법사를 시작(1987년)하면서 매년 졸업 생활과 대청봉을 오르는데, 이놈들은 아직도 나를 못 쫓아와, 허허.”

“그래도 스님 너무 무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내 여든이 되면 그때는 좀 늦었다고 인정해 줄까? 아직은 젊어, 괜찮아.”

언뜻 봐도 스님의 건강은 남다르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님의 건강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 생식을 잘못해 근육을 치른 뒤 정밀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그러다 자연건강법을 만났다.

수십 년 연구 끝에 자타가 공인하는 자연건강법의 대가 됐다. 중생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 몸이 아파 고생하는 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스님만의 건강법을 설교하신다.

의외로 스님의 자연건강법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내가 보기에 ‘아는 게 병’이여, 요즘 사람들은 어설픔게 아는 게 문제야. ‘피식지심(皮食致心)’만 잘 살피도 건강 때문에 큰 고생은 안 해. 사람 몸의 피부는 ‘산독산독’하니 자연바람이 통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깨이면 그게 곧 병을 불러.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지만 매 끼니는 오곡밥(곡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5가지 곡물이면 된다)을 빼뜨리

지 말아야 해. 운동은 사지를 흔들고 걷는 것만한 것이 없지. 마지막으로 정신은 ‘양(良)·능(能)·선(善)’으로 무장해야 건강의 기본이 지켜져. 양 능 선이란 매사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지.”

산을 내려와 경내를 둘러보면 정무 스님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물 제823호 영산전 보수공사에 대해 “뭇 달이면 끝날 것을 시간만 끈다”며 불평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화재청이 발주한 보수공사는 사찰의 의지와 상관 없이 마무리가 돼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를 진행 중인 기술자들은 스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기 그지없

손수 군불 지퍼 데운 물 한바가지로

세수하고 발 씻고 양말까지 ‘씩씩’

자타 공인 자연건강법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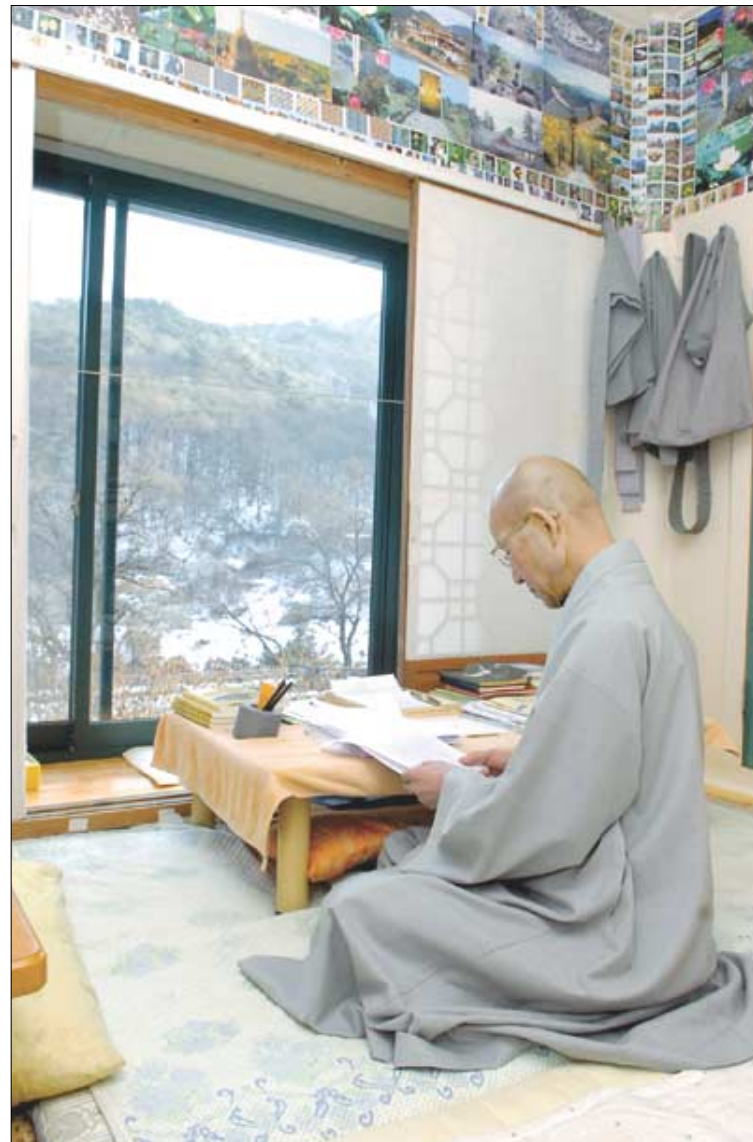
다. 심보를 호지한 불사의 정신은 빠진 채 단지 건축을 복제(複製)하는데 급급한 왜곡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스님이 석남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6년 남짓. 그동안 석남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무허가 슬래브 건물 8동을 내 손으로 헐어 냈다”는 스님은 대웅전과 영산전 주위로 아무렇게나 지어진 요사들을 부수고 기림의 틀을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해 석남사는 분뇨를 퇴비화 하는 전통 해우소로 주목을 받았다. 불교환경연대가 생활환경의 모범 사례로 지정할 만큼 잘 지어진 해우소다. 스님도 ‘목재만을 이용해 지어진데다 통풍과 채광이 뛰어나 수세식 못지않게 냄새가 적다’며 자랑을 곁들였다.

작은 발단을 걸한 스님의 처소로 들어섰다. 평생 검약이 몸에 밴 탓에 웬만해서 난방도 잘 하지 않는다고. 심야전기로 온기를 채우는 스님의 방에는 방이 식지



정무 스님이 안이계신 침묵으로 녹지않은 서실이 눈부시다. 지난 40여년간 신도교육과 포교에 매진해온 정무 스님은 최근 태교에 대한 법문을 정리한 설법집의 원고 집필에 여념이 없다.

말라고 겨울 내내 두꺼운 요가 깔라였다. 요 밑으로 발을 파묻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과 작은 침상, 조만간 출간을 준비 중이라는 스님의 설법집 원고가 놓여있는 낮은 책상까지 방안 구석구석에서 스님의 빈틈없고 단정함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다.

“천정 좀 봐. ‘어! 전등이 없네요.”
“우리 절에는 천정에 불을 안 켜. 머리에 그런 게 있으면 안되니까.”

정말 그랬다. 스님의 방뿐만 아니라 법당, 공양간 등 석남사는 천정 어디에도 조명이 달린 곳이 없었다. 한쪽 벽면에 사람 가슴높이로 전등이 달려 있는 것이 신기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행동에 얽매어는 어리석은 기자에게 ‘발상의 전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경책하는 것 같아 머쓱해졌다.

하루 종일을 따라 다녔지만 귀찮아 하는 기색이 하나라도 더 일러 주시려는 듯, 어떤 때는 오히려 기자가 물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해가 바뀌니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하고 말을 꺼냈다. “어리석은 소리 말이야. 사주는 주역을 근거로 하는데, 주역은 기계론이야. 기계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냐? 그런데, 마음을 공부하는 불자가 기계에 의지한다는 게 말이 돼냐? 명칭들이나 하는 것이지.”

매사가 낙천적인 스님이지만 사된 생각에는 거침 없는 일침을 가했다. 해박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스님의 말씀은 한침을 이어졌다.

“부모노릇, 부부노릇, 자식노릇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기만 한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지. 유식을 공부할 수록 태교의 중요성이 절실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포교전략을 태교로 정했어. ‘8삭’이 아이의 머릿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뱃속에서부터 지구정성으로 키워야 세상이 변할 거야.”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짧은 해가 꼬리를 감추려



생활이 곧 수행인 정무 스님은 아직도 손수 빨래를 하신다.



송광사 강원의 젊은 학인들에게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근본을 설명하고 계신 정무 스님.

“효도하라” 남다른 강조

정무 스님은 정무(正無) 스님은 1931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불교정화가 한창이던 1958년 전북대 수의과를 다니던 스님은 나라를 되찾았으니 불교도 되찾아야 한다는 ‘분심’에 폭심에서 배를 타고 봉은사를 찾아가 불문에 귀의했다. 곧바로 그해 1월 입동에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다. 65년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까지 김재 흥복사와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참선 수행에 몰두했다.

1968년 안경을 쓰기 위해 법어사 선방으로 내려가던 중 영주포교당에서 하루밤을 묵은 것이 인연이 돼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1971년 제2교구 분사 용주사의 주지를 맡았다. 오늘날 용주사가 ‘효행분할’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효도하라”고 강조하는 스님의 원력 때문이다. 2000년부터는 안성 석남사 회주로 불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님은 뒤뜰의 아궁이 앞에 앉아 군불을 지웠다. 도회에서는 버편만 누르던 온수와 난방이 한번에 해결되지만 스님은 “시주를 아끼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얼마든지 감내 할 수 있다”며 기꺼워하신다.

가마솥에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기자에게 떡국을 대접하겠다는 공양주보살이 뜨거운 물 한 솥을 퍼갔다. 잠시 후 스님도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양동이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다시 발을 씻었다. 밖으로 나온 스님의 한손에 양말이 들려있다. 스님은 아무런 말없이 발 씻은 물에 양말까지 빨았다.

저녁때가 돼 스님을 찾아가 송광사 강원 학인들과 나란히 앉아 떡국을 공양했다. 원로스님이지만 스님은 따로 공양상을 받지 않는다. 큰스님부터 학인들, 그리고 재가자들이 둘러앉아 먹는 떡국맛이 유난히 좋았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단집 수미단 전문 조성

천불전,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인등, 현판, 주련 등 전문 제작

누리 불교 예술원

박 연오 대표

TEL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9162

www.nuribul.com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寶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과 내장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제품의 특징

- 좌측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측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ISO 9001:2000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10억 모으기’ 보다 베풀며 살자



5계 가운데 두번째를 설명하고 있는 정무 스님. 스님은 본성에 효순하는 것이 계의 근본이라고 설했다.

정무 스님의 가르침

● 계율 왜 지켜야 하나?

불교공부는 ‘계정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행(行)·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참선에 들어 바른 지혜를 얻으려 제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계행이 청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가 일렁거리 달그림자 가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파도가 그쳐야 비로소 달빛이 강물위에 비듯듯 계율로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어야 선(禪)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를 지키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할 수 있고, 정에 이르러 해가 그대로 구족해집니다. ‘막행막식(莫行莫食)’하면서 지혜를 얻겠다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만큼이나 헛된 것입니다. 조선말 불교가 어지러워지면서 일부에서 ‘구두선(口頭禪)’만 떠들면서 계율 함부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될 말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불교 스스로 자정력이 생기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계율이 청정하고 맑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 5계의 기본은 ‘불음주’

즐거하지 않은 세속의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인성(人性)이 회복돼야 합니다. 술사들이 계를 주면서 ‘살도음망주(殺盜淫妄酒)’를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계를 받고도 불음주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 술사들조차도 조금만 먹으라고 사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맛도 보지 말라 했어요. 오죽하면 오백

인간은 타인 위해 살때 보람

자비·봉사·순결·지혜 실천을

세에 손가락타는 없는 인과를 받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살도음망’이 모두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었답니다. 술을 먹다보니 기운이 뻗치고 몸이 근질근질한데 마침 마당에 닭이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 있던 돌을 던져 닭에게 던졌더니 닭다리가 툭하고 부러졌습니다. 주인이 알면 큰일이다 싶으니 이놈을 부엌으로 끌고 들고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내 닭 주인이 나타나 지나가면 닭을 못 보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딱 잡아먹고 못 봤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립니다.

이것 보세요, 술 한 잔으로 ‘살도음망주’ 5가지 계율을 거침없이 파헤버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계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인성이란 뭘고 하니 ‘본원(本願)·정정(淸淨)·광명(光明)·환희(歡喜)’가 핵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더 알아듣기 쉽게 ‘자비·봉사·순결·지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진선미(眞善美)’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 지금은 본선조차 일그러진 겁니다.

● 지계는 인성에 효순하는 것

나는 계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율은 삼보(三寶)에 효순(孝順)하고,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에게 효순하는 것이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나 자기 부모나, 남의 부모나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라의 자장 율사는 인간이 목숨을 잃으면 일생이 끝나지만, 계를 잃으면 세세생생 만겁을 악도에 해낸다고 했어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

간 본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후대책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맞아 고생하지 않으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토지나 상가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1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상 그런 방법으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지금 35살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저축을 한다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골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생각해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렵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해서 10억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강도’는 되어야 겨우 그 돈을 모을 수 있겠는 싶어요. 모두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 10억을 모았다 칩니다. 그런데 55세 정년이 되어서 이것을 쓰면서 편안히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아온 이런 사람들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워 10억원을 다 써보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생 그 큰돈을 모으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몹쓸 짓하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을 테니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걱정해 줍니까? 결국 한을 먹고 가더라면 말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 때 삶의 만족을 얻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살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 계율 지키며 살면 행복

무한 경쟁사회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본성에서 멀어져 갑니다. 예의염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 본성을 모질게 하는 직업, 즉 생명을 도살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 인성을 거칠게 하는 직업, 남을 못살게 만드는 강패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 인성을 어지럽게 하는 술장사, 마약장사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성을 타락시키는 직업입니다. 흔히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수익을 제공한다는 말로 유혹해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직업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악이 득해 병은 나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만큼이나 덧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앞장서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를 지키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첫째 불보살이 응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착한 사람만 만나집니다. 세 번째, 항상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네 번째, 자원이 구족해집니다. 남비를 하지 않으니 자연히 재물이 풍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내생에는 착한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불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행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려=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9>



좋은 이름 찾아 길 떠난 소년

한 스승 아래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항상 “나쁜 사람아, 어서 오너라. 나쁜 사람아, 거기 서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년은 자기 이름이 불길하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름을 바꿔 주십시오. 제 인생을 활짝 꽃피울 좋은 이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은 말하였습니다.

“좋다. 대신 네가 이름을 찾아오너라. 이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이름을 알아 보거라. 네가 정말 좋은 이름을 찾아오면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소년은 스승에게 인사말을 하고 길을 나섰다. 그는 좋은 이름을 찾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어느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그 도시의 큰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슬픔에 잠겨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소년

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깊은이 밝은 이’입니다.” “깊은 밝은 사람도 길을 잃습니까?” 그러자 그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이름이 무슨 상관이요? 누구나 길을 잃을 수도 있소.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은 정말 처음 보았소.”

결국 소년은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아무런 이름도 찾지 못한 채 맨손으로 스승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때, 네 마음에 꼭 드는 이름을 찾았느냐?” 소년은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목숨 있는 이도 목숨 없는 이도 죽습니다. 보물지기도 보물지가 아닌 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밝은 이도 깊은 밝지 않은 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을 따라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본생경 97번째 이야기)

지금 무얼 하느냐 따라 나의 미래 결정 이름·사주에 매달린다고 행복해 질까

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분은 ‘수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까?” “당신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군요. 수명이 있는 사람이나 수명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한 것이요.”

소년이 그곳을 떠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중이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매를 맞고 있습니까?” “빛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물지기’입니다.”

“이름이 보물지기인데 어찌하여 빛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까?”

“보물지기인 보물지기가 아닌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정말 무식하군요.”

소년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죽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을 이름을 찾아서 정처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잃고 헤

매체 행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내 행운이 숨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이름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액난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면 부적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내일플로버와 같은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가방에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인지라 결코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게 행운을 불러 올까 하는 것에는 회의가 집습니다. 애당초 정해진 운명이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액난을 멀리하고 행복을 부르려던 행복해지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처처럼 일하고 저축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술담배를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 지는 시간에 머리를 써내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제쳐두고 이름이나 사주에 매달린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은 내 품에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미형(동국대국문역권위원장)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감사의 향기 삶의 향기를 추구하는 주)만복향당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거듭 태어난 저의 주)만복향당이 지면을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전통향 시리즈 1 (건성향·지단향·천연목향)



건성향
참숯과 천연 허브 에센스를 사용하여 리본더의 상쾌함과 부드러운 향을 재현한 고급 무연향



지단향
오랜 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인 고급 선향 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천연목향
지단과 함께 사랑받아 온 천연 목향과 백단의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깊고 부드러운 향취 자연향으로 남기를 치유하고, 강한 진정효과가 있다. 혈압을 낮춘다.



진품 향기인 **靑靄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향균작용과 개미,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E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향당(NKO)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오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외향 시리즈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진향이 긴 시간 남아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 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약취(담배연기, 지아실의 습한 냄새 등)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이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남은 공기를 유지하며,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2동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밀납양초 (Bee's Candle)



삼보귀의 하급고 저희 삼향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변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삭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 밀납초 전사지 반이섬경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이섬경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이섬경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천연약삭향 양초의 특징

-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③ 천연약삭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삭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썩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약삭향양초 1호(둔타대) 5.6cm × 27cm 연소시간 약 100시간
- 약삭향양초 2호(밀대) 4.6cm × 25cm 연소시간 약 40시간
- 약삭향양초 3호(둔타대) 3.4cm × 22.5cm 연소시간 약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cm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 ① 그윽음이 없습니다.
-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열성 그윽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하십시오.

-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연소시간 약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발명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결속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 (1~4호 밀납초 발명대)



* 박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샘플컷 보내드리겠습니다